

보험개발원, 4분기중 10차 개정안 발표
내년 보험가격에 평균수명 변동에 반영



내년부터 종신보험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늘어난 평균수명이 보험사의 가격산출에 반영되는 영향**이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평균수명 변동을 반영하는 10차 경험생명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 개정표는 오는 4분기 중 발표된다. 보험사는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다음해 4월 보험료에 적용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통계 데이터를 받아 작업하는 절차 중”이라며 “올해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3~5년 주기로 경험생명표를 개정하고 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질병·재해·상해·사망 등의 발생 확률을 수집해 성별, 연령 등으로 세분화한 통계표다.

정제작업을 거친 데이터는 보험상품의 요율 산출 작업에 활용된다. 산출된 요율은 금융당국에 신고한 이후 다음해 상품부터 적용된다.

개정 경험생명표가 반영되면 내년 보험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부터 적용된 9차 경험생명표 개정 이후 종신보험료는 평균 3.8%가량 인하됐다.

이는 **평균수명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 1989년 1차 경험생명표가 시행된 이후 남성 평균수명은 △1차 65.65세 △2차 67.16세 △3차 68.39세 △4차 72.32세 △5차 76.4세 △6차 78.5세 △7차 80.0세 △8차 81.4세 △9차 83.5세로 나타났다.

여성도 △1차 75.65세 △2차 76.78세 △3차 77.94세 △4차 80.9세 △5차 84.4세 △6차 85.3세 △7차 85.9세 △8차 86.7세 △9차 88.5세를 기록해 지속 증가했다.



사망은악인
(행안부참고?)

보험설계사는 왜 종신보험을 좋아할까?

종신보험 판매 수수료, 저축성보험의 3~4배 달해 금융감독원에 비난해 하...

blog.naver.com

올해도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경우 연금 수령액은 줄고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에 따라 연금은 올해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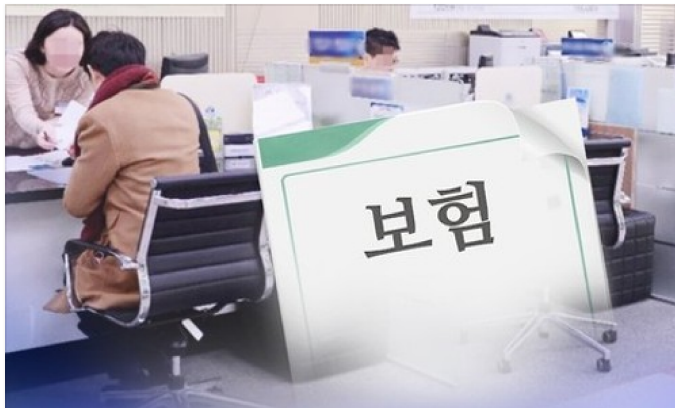
한 보험사 관계자는 “평균수명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에 변동이 있다”며 “보험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금리 인상과 맞물려 내년 종신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이나 종신보험 이외에도 재해, 사망, 질병 등과 관련한 보험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경험생명표에는 사망률과 암 발생률, 평균 입원일수 등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내년엔 종신보험 더 저렴해진다...경험생명표 개정 시작 - 대한...

내년부터 종신보험이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늘어난 평균수명이 보험사의 ...

www.kbanker.co.kr



종신보험 민원 증가...가입 전 '이것' 알아두자

최근 종신보험 가운데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종신보험 ...

blog.naver.com